

〈2018년 11월 10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때’를 지켰나, 안 지켰나 보아라. 1초도 어기지 않고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람들은 따져 보지 않으니, 행한 것도 알아주지 못한다.” 하셨다. 따져 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하셨겠지.’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1초’도 늦지 않고 6000년 동안 역사를 펴 오셨다. 그러나 사람은 ‘1초’가 아니라, 1분 늦을 때도 있었고, 1시간 늦을 때도 있었고, 하루 늦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1년, 10년, 100년씩 늦기도 했다.
2.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려라. 이 〈때〉는 ‘한 때 두 때 반 때’ 이니라.
3.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되고 고통에서 벗어나느냐고 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기도하여 하나님께 받은 답이 ‘한 때 두 때 반 때’ 였다. 이 〈한 때 두 때 반 때〉가 언제인지 풀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는 풀 것이다.” 하셨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지혜’ 대로 조금씩 풀었으나, 하나님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 그에 해당되는 주인이 와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선생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또 ‘두 때’와 ‘반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자꾸 물어봤다. 결국 보니, 〈때〉는 ‘시간, 날수, 달수, 년도’ 였

다. 비로소 <한 때 두 때 반 때>에 대해 깨닫고 알게 됐다. <한 때>는 ‘1년’ 이고, <두 때>는 ‘2년’ 이고, <반 때>는 ‘6개월’ 이다. 고로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6개월’ 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펴시는 때의 기본법이다. <3년 6개월>을 ‘달’ 로 계산할 때는 한 달을 ‘30일’ 로 계산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달력>은 ‘달’ 로 만들어서 ‘월삭’ 부터 ‘만월(보름)’ 까지, 다시 ‘만월’ 부터 ‘그믐’ 까지 하면 ‘30일’ 이기 때문이다. 고로 <한 달>을 ‘30일’ 로 놓고 계산하면, <3년 6개월>은 ‘1260일’ 이다. 그리고 <하루>를 ‘1년’ 으로 확대하면, 1260년이다. 다니엘 12장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미운 물건을 세운 때>부터라고 했다. ‘한 때 두 때 반 때’ 는 ‘고역 기간, 형벌 기간, 기다리는 기간’ 이다. <죄를 지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가증한 미운 물건>은 ‘회교 사원’ 이다. <회교>는 ‘가인에 속한 종의 족속, 가인에 속한 세계’ 이다. 고로 회교인들이 예루살렘에 <회교 사원을 세운 때>인 ‘688년’ 부터 ‘한 때 두 때 반 때’ 곧, 1260년을 더하면, ‘1948년’ 이 나온다. <1948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된 해이다. <지혜>가 없으면, 이같이 풀 수가 없다. 고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만 깨닫고 알리라.” 하셨다.

4. 다니엘 12장 11절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낸다고 했다. 고로 회교 사원을 세운 때인 688년에 1290년을 더하면 ‘1978년’ 이 나온다. 이때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역사를 펴려고 나오는 해’ 이다. 이때 하나님은 선생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 이때 ‘영적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해방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고로 이때부터 신앙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는 ‘구시대 주관권’을 벗어나 ‘새로운 시대, 새 역사의 세계’가 되었다.

5.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육적 해방>이다. 선생은 우리나라가 ‘육적 해방이 되는 해’에 해방둥이로 태어났다. <육적 해방의 때>에 태어났으니 ‘육적 해방의 역사’도 맞았고, 또 <1978년 영적 해방의 때>부터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낳는 역사를 시작했으니 ‘영적 해방의 역사’도 맞았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때’에 맞게 다 하셨다.

6. <성약 복음의 역사>는 1978년에 시작했으나, ‘준비’는 그 전부터 해야 된다. 1975년은 ‘세레 요한의 외침이 끝나는 때’다. 그때 영계에서 보니, 기독교와 한 종교가 싸우는데 한 종교가 반기를 들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 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의 집회에 가 봤다. 군중이 100만 명이 모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 물으니, “세레 요한의 역사이니라.” 하셨다. <세레 요한의 역사>가 오면, 곧 ‘메시아의 역사’가 온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3년 6개월을 더하니, 1978년이 되었다.

7. <역사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갈 사람’을 보내 주신다.

8. <시대>가 되면, ‘세레 요한’도 오고 ‘메시아’도 온다. <세레

요한>만 온 때가 없었다.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모세 때>도 모두 세레 요한의 사명을 하는 자가 있었다.

9. <메시아>가 오면, 항상 ‘세레 요한’ 이 먼저 나타난다. <개인적 세레 요한>, <민족적 세레 요한>, <세계적 세레 요한>이 있다. <세레 요한>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한다.

10. <세레 요한>은 ‘메시아의 발판’ 이다. 고로 세레 요한도 메시아 노정을 간다. 축복도, 고난도 같이 받는다. 발판인 세레 요한이 죽으니 예수님도 죽었다. 발판이 따로 놀면 안 된다.

11. <이 시대>도 ‘세레 요한 때’ 부터 깨지니, ‘시대 십자가’ 를 졌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육신이 죽는 십자가’ 가 아니라 고통을 받는 ‘환난의 십자가’ 를 졌다. 그래서 안 죽고 살아난 것이다.

12. <수학>은 공식에 넣으면, 정확하게 답이 ‘하나’ 가 나온다. <답>이 ‘두 개’ 는 없다.

13. <한 때 두 때 반 때>를 보면, 작게는 3년 6개월이다. 확대해서 보면 7년, 7년, 7년씩 해서 21년, 혹은 20년도 되고, 혹은 40년, 혹은 42년도 된다. 1978년부터 시작해서 이같이 ‘한 때 두 때 반 때 역사’ 를 펴 왔다.

14. 지금은 ‘부활기’ 에 해당되는 때다. 천 년 역사를 두고, 이때 부활을 확실히 시켜 봐야 된다. <부활 기간 때>에 살아나서, 이

때를 확실히 가르쳐 봐야 된다.

15. 다니엘서 12장 12절을 보면,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다. 마찬가지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미운 것을 세운 때인 688년에서 1335년을 더 하면, 2023년이 나온다. <기성>에서는 풀지는 못했어도 이때를 두고 기다리나, 그들의 것이 아니다. <시대를 따르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새 역사를 펴는 사람의 것이다. 2023년, 이때에는 무슨 역사를 펴 가느냐? 좋은 것이다!
16.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이 ‘때’에 맞게 보내기 때문에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하나님의 때’와 딱 맞게 역사를 펴 나간다. <때>가 안 맞으면, 아니다.
17. <때>를 알고 <역사>를 알면, ‘하나님’ 까지 안다. 고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시는지 안다. 지금 하나님은 ‘휴거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주>를 통해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
18. <역사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때’만 지나가게 두지 않으시고 그 때를 따라 ‘일할 사람’을 보내 주신다. <때>가 되면, ‘씨를 뿌릴 사람’을 보내시고, 만물이 성장하면 ‘거두게 할 사람’을 보내신다. 이같이 하나님은 <역사의 때>만 흘러가게 두지 않으시고, 역사의 때에 맞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

19. <때>가 되면, ‘그에 해당되는 만물’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고로 때가 되면, ‘살 것’도 사야 된다. <사람>도 그러하다. <때>가 되면 사람도 나타나니, 전도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금년도 한 달 남았다. 계산하여라.” 하셨다. 남은 한 달 동안 자기가 해야 할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

20. <시대>에 따라 ‘사람’도, ‘만물’도 나타난다.

21. 사람은 행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행하신다.

22. <남편>은 행하는데, ‘부인’이 행치 않으면 되겠느냐. <부인>은 행하는데, ‘남편’이 행치 않으면 되겠느냐. 부부는 같이 해야 되듯이, 하나님과 주와 일체 되어 같이 해야 된다.

23. <때>가 왔어도 ‘준비’가 안 됐으면, ‘때’를 제대로 못 맞는다. 혹은 맞았어도, 시원찮게 맞는다. 이는 마치 물건을 사러 갔는데, 돈은 돈대로 다 주고 제대로 된 물건을 못 사 오는 것과 같다.

24. <깨어 있는 자>는 ‘때’를 알고 맞는다.

25. <깨어 있는 자>가 기어코 ‘때’를 놓치지 않고 행한다.

26. <때>를 ‘하나님’처럼 기다려라.

27. <때>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기다리듯 ‘때’를 기다려

라.

28. <하나님>이 ‘때’ 다. <성령님>이 ‘때’ 다. <주>가 ‘때’ 다.
그러니 끝까지 기다려라.

29. <때>가 왔다. 할 때 해라.

30. <때>를 잊으면 ‘때’ 가 죽는다. <때>가 왔어도 행하지 않으면, 때가 죽어 버리는 것이다.

31. <때>가 ‘복’ 이다. <나무>도 ‘때’ 가 왔는데 손을 못 대면 죽듯이, 이때 손댈 것이 있으면 꼭 손을 대야 된다.

◎ 금주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